

## I. 일반적 원칙

1. OUGHTOPIA: Journal of New Visions for Human Society(이하 『오토피아』)는 연 3회(발행일: 6월 30일, 10월 31일, 2월 28일) 발간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입니다. 『오토피아』는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인간적인 인류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 성과물의 게재 신청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투고 원고는 당연히 어느 곳에도 출간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유사한 논문을 이중으로 게재 신청하셔도 안 됩니다.
2.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kihs.jams.or.kr>)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비용의 일부인 5만 원을 납입하셔야 하며, 게재 확정된 논문으로서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여 사사 표기를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논문은 우선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의 적합성 검토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논문은 3인의 익명 심사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되며,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4. 저자의 익명성 처리
  - 1) 논문 기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명, 인터넷 주소, 사사 표기 등 저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심사단계의 논문에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 2) 논문의 내용에도 저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3) 접수된 심사용 원고에 저자의 신원이 파악되는 표기가 들어있는 경우, 원고는 기고자에게 반송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수정한 후에 다시 투고하실 수 있으며, 이때가 새로운 투고 시점이 됩니다.
5. 오토피아의 연구 지향성과 맞지 않는 논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 선정 전 논문 투고 철회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6.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본 학술지의 편집 방침을 고려하여 논문 내용의 수정 및 보완 혹은 편집방침에 위배된 부분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께서는 연구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와 자가점검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8.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구원에 귀속됩니다.

## II. 투고 시 유의사항

1. 논문의 투고 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① 투고논문의 제목(국문과 영문)
- ② 투고자의 이름(국문과 영문): 투고 시 삭제하고 제출
- ③ 5개의 주제어(국문과 영문)
- ④ 초록(국문: 원고지 3매 분량, 영문: 200단어 분량)

2. 투고논문은 “아래아 한글”(hwp) 또는 “MS워드”(docx)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투고논문의 분량은, 한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며, 180매를 넘지 못합니다. 150매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분량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00자 원고지 1매당 5천 원). 영문논문일 경우 8,000단어 내외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논문은 다음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사를 통과한 논문도 게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논문의 투고와 심사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질문이나 건의는 편집위원회에 이메일(oughtopia@khu.ac.kr)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III. 원고 구성 방법

1. 원고의 구성은 제목, 목차,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합니다.

2. 목차는 제목 아래 네모 칸을 만들어 그 안에 작성합니다.

예.

I. 서론	IV.
II.	1.
III.	2.
1.	1)
1)	2)
2.	V. 결론 및 시사점

3. 원고의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로 작성하며, 영문초록은 국문 초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단어 내외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1, 1), (1), 가’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겨야 하며,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합니다.
5. 본문 내 인용 자료 출전 표기 양식은 <출전 표기 요령>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6. 참고문헌은 <참고문헌 작성 요령>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 IV. 출전 표기 요령

1. 출전 표기는 본문 내의 괄호 안에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 표기하며, 외국 문헌일 경우에는 영문 성과 함께 연도를 표시합니다.
  - 1) 저자명이 본문 내에 나와 있는 경우  
예. 조영식(1953)은... 칸트(Kant 1781)는...
  - 2) 저자명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  
예. (조영식 1953). (Kant 1781).
  - 3) 면수를 표기할 경우  
예. (조영식 1953, 39). (Kant 1781, 46).
2. 저자가 2명일 경우 저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합니다.  
예. 조영식·손재식(1958)의 연구에 의해서.....  
예. Robert와 Skidelsky(2013)는.....
3.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외’(외국어 문헌의 경우 et al.)를 덧붙여 표기합니다.  
예. (조영식 외 1958). (Berelson, Bernard R. et al. 1954).

4. 여러 문헌을 한 번에 표기해야 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조영식 1953; 손재식 1993, 37)... (Kant 1781, 157; Mill 1988, 23)
5. 저자가 기관일 경우 기관명을 표기합니다.  
예.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5).
6. 신문, 월간지 등의 기사를 언급해야 할 경우는 발행일을 괄호 안에 표기합니다.  
예. (동아일보 2011/03/04)...
7. 본문 내의 <표> 또는 <그림>의 경우 반드시 표 하단 좌측에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8.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하되,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n.d.’를 표기합니다.  
예. Tilly(forthcoming)…; 조영식(미간); Jones(n.d.)…

## V. 참고 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 정보를 표기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헌 정보는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을 맨 먼저 두고, 영문, 중문, 일문 등의 순으로 배열한다.
3.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국내 저자는 가나다순으로, 영문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합니다.
4. 참고문헌 정보는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 또는 저서명, 출판지, 출판사의 순서로 기재하며, 각 항목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하되, 다만 출판지 다음에는 콜론을 하고 출판사명을 기재합니다.

### (1) 저서

#### 가. 저자가 1인인 경우

예. 조영식. 1953. 『문화세계의 창조』.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예. Kant, Immanuel. 1781. *Critique of Pure Reason*. German: Kritik der reinen Vernunft.

#### 나. 저자가 2인인 경우 공동저자 이름을 모두 적되,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다음에 ‘외’로 표기합니다.

예. 조영식·손재식. 1958. 『인류사회의 재건』.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예. Skidelsky, Robert & Edward Skidelsky. 2013. *How Much is Enough?:*

*Money and the Good Life*. New York: Other Press.

예. Berelson, Bernard R. et al.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편집된 책 속의 글인 경우

예. 이동수. 2015. “르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정부.” 이동수 편. 『정부의 재발견: 공공성과 공동성 사이에서』. 서울: 인간사랑. pp.75-113.

예. Beierle, Thomas C. 2004. “Digital Deliberation: Engaging the Public Through Online Policy Dialogues.” Peter M. Shane, ed. *Democracy Online: The Prospects for Political Renewal Through Internet*. New York: Routledge. pp.50-79.

(3) 번역서의 경우

예. 듀엘만, 리처드. 최윤영 역. 2005. 『개인의 발견 1500~1800』. 서울: 현실문화연구.

(4) 학술지, 월간지 및 계간지 발표 논문의 경우

예. 윤종빈. 2004. “16대 국회의원 역할유형과 지역구 활동.” 『한국정치학회보』 38집 5호. pp.177-196.

예. Foley, Michael W. and Edward, Bob. 1996.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Journal of Democracy*, Vol.7, No.3. pp.126-148.

(5) 학위논문의 경우

예. 홍길동. 2007. “조선 후기 민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예. Deo,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6)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예. 김경희. 2009. “한국 공공갈등의 속성.” 한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국제분쟁해결사례연구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서울, 5월 25일).

예. Kim, Kyung Hee. 2015.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Dispute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s organized by the Research Center on Dispute Settlements, Hankook University(Seoul, 25 May).

(7) 신문 및 인터넷 자료

가. 신문

예. 저자. (연도). “기사 제목.” *신문사* (월 일).

예. (기명 기사의 경우) Bernstein, J. 2015. “The Case for a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New York Times* (July 22).

예. 신문사. (연도). “기사 제목.” (월 일).

예. (무기명 기사의 경우) *New York Times*. 2015. “The Case for a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July 22).

나. 인터넷 자료

예. 저자. (연도). “제목.” (월 일). 인터넷 주소

예. The National. 2017. “Europe's financial centres compete to woo financial firms away from London.” (7 November). <https://www.thenational.ae/business/banking/europe-s-financial-centres-compete-to-woo-financial-firms-away-from-london-1.673873>. (검색일: 2018.01.19.)

(8) 기타

이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편집위원회 (02-961-0201, oughtopia@khu.ac.kr)로 문의해 주십시오.